

#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 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Perception on Marriage Attitude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박 정 윤

박 사 김 예 리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eong Yun Park

Doctor : Yae Ree Kim

##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 the effects of parent-children relationship on marriage attitude among unmarried persons and to utilize the findings as source material in assessing changes to marriage and family value. In total 654 unmarried persons above the age of 20 in this study. A survey format was used to asked questions, and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SPSS(Version 15.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socioeconomic variables, religion was significantly relate to marriage attitude( $p < .001$ ).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rriage value( $p < .05$ ). Specifically, high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 and relationship with father was related to more positive marriage attitudes. Finally, effective socioeconomic variables in marriage attitude were religion, job,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mother and father.

**주제어(Key Words)** : 결혼태도(marriage attitude), 심리적 독립심(psychological separation), 부모자녀 유대감  
(parent-child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Jeong Yun Park,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72-1, Nae-ri, Daeduk-myun, Ansong-si, Kyungki-do, 456-756, Korea Tel: +82-31-670-4838 Fax: +82-31-675-4746 E-mail: pjy4838@cau.ac.kr

\* 본 연구는 2010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I. 서론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출발점이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기초적 공동체를 만들고, 인간의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자녀출산으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시키며, 가족원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결혼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요성이나 사회적, 개인적 의미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의 정도가 다르게 인식되어서 최근에는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자식으로서의 의무였으며 성인기의 필수적 거치는 과제로서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마다 자신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팽배해지고 있다. 즉, 과거의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선택하는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근래 결혼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은 결혼이 개인에게 주는 매력이나 장점이 적고, 부담이 증가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결정이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연구동향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몇몇 연구(김경신, 이선미, 1998; 이삼식, 신인철, 전남훈, 2005; 이삼식, 2006)에서 개인의 선택적 삶의 양식으로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양상을 밝힌 반면 또 다른 연구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직업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혜환, 2008; 신호영, 방은령, 2007; 임연미, 2004; 장진경,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 따르면 미혼자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사회전반의 고용 및 소득불안정, 일-가정 양립곤란, 결혼비용 부담, 가부장적 결혼부담, 적절한 배우자 부재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결혼이 물질적, 심리적 부담이 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많지 않다고 지각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서울시, 2008)에서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결혼이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미혼자들이 일에 대한 강한 성취의욕과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불안감, 결혼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부담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혼자에게 결혼이 더 이상 행복한 경험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과 동시에 극히 개인적 경험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결혼선택 자체는 개인적인 삶의 범주로만 인식되지만 결혼태도나 인식은 개인들이 오랜 기간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남녀는 자신의 결혼결정이 당시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환경적 변인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반면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독특한 결혼현상으로 '취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혼을 하나의 취업형태로 보는 새로운 결혼개념이다. 이는 IMF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신조어로서, 최근에 재등장하고 있는데, 취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취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는 보고에서도 그 의미가 해석되어진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고 취업이 용이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의 대안으로 여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생활에 결혼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혼행동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혼태도 변화에 대한 최근연구(고경애, 2006; 권재철, 2006; 김보경, 2005; 남순현, 2007; 박은선, 2007; 신호영, 방은령, 2007; 오선영, 2005; 이지원, 2006; 조윤정, 2006; 조은수, 2007)를 보면 결혼여부, 결혼동기, 배우자조건, 자녀관 등에 대해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결혼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결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각할 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미혼자들의 일관되지 않는 결혼태도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새롭고 독립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양가적 태도는 미혼자들의 결혼태도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이러한 태도결정이나 가치판단은 개인들이 살아온 가족 생활과 그 안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일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혼태도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고경애, 2006; 권재철, 2006; 김양희, 문영소, 박정운, 2003; 김혜환, 2008; 신호영, 방은령, 2007)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 중 하나가 성별에 따라서 결혼태도가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삶에서 결혼이 주는 의미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결혼태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결혼에서 양성평등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있어 두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결

혼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의 성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이지원, 2006), 원가족 건강성(조은수, 2007)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지만 설정한 관련변인이 많지 않아 탐색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관련변인을 계속적으로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한편 결혼태도는 가족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와 적절한 애착을 형성하고, 독립심을 발달시키면 적절한 시기에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행동, 가치, 태도를 수용하게 되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는 미혼자녀의 결혼태도나 가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미혼 남녀의 결혼태도는 원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족 내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기혼자녀의 결혼생활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임유진, 2008)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이들 변인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자들의 결혼태도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을 밝혀 미래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창출하는 요소를 찾고, 더 나아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혼남녀가 전전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결혼태도를 형성하고 다음세대의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도모하고, 세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결혼태도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여 원가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원가족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이 장래 자신의 결혼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실천적 인 면에서 예비부부교육 또는 성인자녀 둔 부모교육에 적용하여 원가족 내에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은 원가족에서부터 새로운 가족형성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을 기르는 데 활용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독립심, 결혼태도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인가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태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혼남녀의 부모자녀관계(유대감 및 독립심)에 따라 결혼태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관련변인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태도

결혼태도는 결혼관, 결혼인식, 결혼이미지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김경신과 이선미(1998)는 결혼태도를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라고 하였으며, 권인숙(2003)은 결혼태도를 가족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이며 결혼 후의 생활설계에 관련된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지침과 근거라고 하였다. 이지원(2006)에 따르면 결혼태도는 결혼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규범 및 가치관으로써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분 및 계급적 관계를 반영하며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결혼태도를 결혼의미, 규범 등 결혼 전반에 대한 선호정도로서 총칭하는 것으로 결혼지향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관이고 결혼 후의 개인의 결혼행동 선택의 근거로 규정하였다.

결혼태도는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은 당위적이고 의무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의미나 태도는 감소하였으며 지금은 결혼을 거부적인 경향과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가 증가(이삼식, 2006; 이삼식 외, 2005)하는 반면 몇몇 연구는 결혼은 사랑의 완성으로 장기적으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활양식이라고 여기는 입장의 연구(김혜환, 2008; 신효영, 방은령, 2007; 임연미, 2004; 장진경, 2005)가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한 것은 결혼태도 형성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선택적 삶으로 결혼을 인식함이 강해지는 이 시점에서 미혼남녀의 결혼태도 양상과 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결혼태도 관련연구는 결혼동기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김용미 외(2002)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의 동기가 '사랑'이며, 장진경(2005), 조윤정(2006) 등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라고 응답하여 결혼을 통해 정

서적 안정과 애정적 욕구충족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결혼의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의 사회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조윤정, 2006). 이러한 맥락은 독신동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독신선택이 '자율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결과(김양희 외, 2003; 장진경, 2005; 조윤정, 2006)에서 결혼이 개인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구속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적인 삶으로서의 결혼은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선택기준은 결혼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수박에 없다. 즉, 결혼의 의미는 개인의 욕구나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애정이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혜(2003)는 결혼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 문제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위치한 사회의 거시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결혼행동의 변화와 함께 소위 사회적 시간표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연령 규범 또한 변화되면서 결혼 적령기, 자녀출산 적령기, 은퇴 적령기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대개 동의하는 그런 기대연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한경혜, 2003).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미혼남녀의 결혼태도는 여러 상황과 여건에 관련됨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 1) 인구사회학적 변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취업유무, 학력, 수입 등이다. 이 변인 중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변인이 성별이다. 서구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의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South, 2001), 국내의 경우 남자가 결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선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2005; 김혜선, 이정음, 2003; 김혜환, 2008; 신효영, 방은령, 2007). 또, 남성은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태도이며, 여성은 결혼 전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연령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소극적이며 연령에 따라서 결혼시기, 동기 등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서울시, 2008).

조윤정(2006)은 연령, 학력, 종교가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결혼을 선호하였다. South(2001)은 취업여부가 결혼의지에 영향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결혼선택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김보경(2006)은 소득수준이 결혼태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밝혔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라(2006)는 고등학생의 결혼관을 연구하였는데 종교가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결혼이미지가 긍정적이어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성별, 연령, 학력, 취업유무, 종교 등이 관련변인이 공통적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 변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선정하여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2) 가족변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변인으로는 원가족 건강성,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으로 부모자녀관계와 결혼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 심리적 독립심이다. 심리적 독립심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감을 얻는 심리내적인 과정이다.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행동이 결혼선택이 될 수 있다. 결혼태도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나 이성교제에 주는 영향(박은선, 2007; 이진하, 최연실, 2006), 기혼자녀의 부부관계에게 주는 영향(임유진, 2008) 등이 있다.

박은선(2007)은 대학생의 결혼이미지는 모와의 갈등적 독립과 정적 상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는 부적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와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의존적일수록 결혼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진(2008)의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후 부부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의 애정적 관계형성에 일차적인 학습과 영향을 받게 됨으로 결혼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부모자녀 유대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Collins와 Read는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 수준이 낮은 반면에,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희, 2008 재인용). 또한 익애적이고 과보호적인 가정의 자녀는 신경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사회성 및 정서적인 양극

성을 나타내고, 거부적이고 방임적인 가정에서는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성격 유형이 나타났고, 민주적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통솔력이나 창의력 등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하였다(Baldwin, 1995; 김신희, 2008 재인용). 김태현과 임선영(2004)은 부모자녀관계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자신의 자존감,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백영수(2002)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정도가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주는 영향은 없었으나,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좋을수록 결혼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인 결혼에 대한 기대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서 이성 관계, 양육태도 등에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고 부나 모 각각과의 관계형성이나 관계지각이 성인자녀의 결혼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유대감이나 독립심의 정도가 다르며 그것은 결국 부모 각자와 자녀사이에서 관계양상의 다른 지각이 결혼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자녀관계는 성인자녀의 가치 형성, 결혼에 대한 태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남녀이다.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법적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만혼의 경향과 결혼적령기 개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23일 4일간 미혼남녀 7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 보완 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31일에서 11월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미혼남녀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는 편의표집을 통해서 직접 방문조사, 우편조사, 전자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7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6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98.0%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총 65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결혼태도

결혼태도는 결혼전반에 대한 선호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결혼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지원(200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23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8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거 및 결혼계약서에 대한 태도에 대한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였으며 신뢰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881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 적절한 척도로 밝혀졌다.

#####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의 하나로써 부모와의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및 태도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의 고유한 발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는 Hoffman(1984)이 제작하고 김은영(1993)이 번역하고 정윤경(2004)이 하위차원별 문항 비율을 고려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각각 33문항으로 재구성한 심리적 독립 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내용은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감정, 의사결정과 감정에 대한 부모의 존중정도, 부모 부재에 대한 느낌, 부모와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 등이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884(부독립심 .963, 모독립심 .880)으로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 3) 부모자녀간 유대감

부모자녀간 유대감은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일체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관계로 정의한다. 부모자녀간 유대감은 최인재(2006)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PRI)를 김신희(200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3문항이며 내용은 지지나 후원정도, 공유하는 경험의 정도, 부모에 대한 자긍심과 친밀감의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70(부와의 관계 .984, 모와의 관계 .950)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 적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남자 n(%)	여자 n(%)	변인	집단	남자 n(%)	여자 n(%)
연령	20세~24세	123 (39.2)	212 (62.2)	출생 순위	장남, 장녀	149 (47.5)	162 (47.8)
	25세~29세	121 (38.5)	62 (18.3)		그 외	165 (52.6)	178 (52.2)
	30세~34세	52 (16.6)	40 (11.8)	가족 유형	핵 가족	204 (65.0)	241 (70.8)
	35세이상	18 (5.7)	26 (7.7)		그 외 가족	110 (35.0)	99 (29.2)
종교	기독교	176 (56.1)	180 (52.9)	가계 수입	100만원 미만	39 (12.4)	25 (7.4)
	불교	27 (8.6)	44 (12.9)		100이상-200만원미만	43 (13.7)	56 (16.5)
	천주교	22 (7.0)	26 (7.6)		200이상-300만원미만	62 (19.7)	63 (18.5)
	무교	83 (26.4)	90 (26.5)		300이상-400만원미만	75 (23.9)	70 (20.6)
학력	기타	6 (1.9)	0 (0.0)	400만원 이상	93 (29.6)	126 (37.0)	
	고등학교 졸업	33 (10.5)	23 (6.8)	직업	학생	226 (72.0)	117 (67.4)
	대학교 재학	166 (52.8)	186 (54.6)		직장인	88 (28.0)	111 (32.6)
	대학교 졸업	115 (36.6)	131 (38.6)				

\* 각 변인별 무응답 비율을 제외하여 사례수의 차이가 있음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남녀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24세 이상'이 39.2%, '25-29세'가 38.5%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24세' 분포가 62.2%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5-29'세가 18.3%를 차지하여 남성과 다른 경향이었다. 남성의 경우 '30세-34세'가 16.6%, '35세 이상'이 5.7%였고, 여성은 11.8%, 7.7%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남녀 각각 56.1%, 52.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무교'가 남성의 26.4%, 여성의 26.5%이었고, '불교' (남:8.6%, 여:12.9%), '천주교' (남:7.0%, 여:7.6%) 차지하였다. 학력은 남성의 52.8%, 여성의 54.6%가 '대학재학'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이 36.6%, '고졸이하'가 10.5%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이 38.6%, '고졸 이하'가 6.8%를 차지하였다. 출생순위는 남녀 모두 '장남·장녀' 비율이 각각 47.5%, 47.8%였고, 그 외 '차남·차녀', '막내'의 비율이 52.6%, 52.2%를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은 '핵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65.0%, 여성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가족유형은 35.0%, 29.2%를 차지하였다. 가계소득은 응답자 모두가 '400만원 이상'이 남성의 29.6%, 여성의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남:23.9%, 여:20.6%)를 차지하였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남:19.7%, 여:18.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남:13.7%, 여:16.5%)의 순이었다. 직업은 현재 '학생'인 경우, 남성 72%, 여성 67.4%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미혼 남녀의 부모자녀관계 지각에 따라 결혼태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수집된 자료를 SPSS PC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결혼태도와 부모와의 독립심과 유대감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에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관련변인들에 따라 미혼남녀의 결혼태도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t$ -test,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Scheffé를 실시하였다. 셋째, 관련변인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와의 유대감, 심리적 독립심 및 결혼태도의 경향성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변인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았다. 부모·자녀간 유대감 지각을 부, 모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와의 유대감 평균이 남성은 3.98점, 여성은 3.96으로 5점 만점으로 볼 때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 평균은 남성이 3.47점, 여성이 3.51점으로 원만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유대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즉, 한국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주로 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더 긴밀하게 형성되었을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은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 경향성

변인		남자 : M(SD)	여자 : M(SD)	t
부모로부터 심리적독립심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	3.22 (.54)	3.03 (.59)	4.272***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심	2.98 (1.05)	3.01 (.85)	-.373
부모와의 유대감	어머니와의 유대감	3.98 (.77)	3.96 (.74)	.372
	아버지와의 유대감	3.47 (1.29)	3.51 (1.11)	-.416
결혼태도		3.60 (.75)	3.51 (.61)	1.836

\*\*\*  $p < .001$

3.22점, 여성은 3.03점으로 나타나서 남성이 여성보다 어머니와 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와의 독립심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태도 평균의 성별비교를 보면 남성은 평균이 3.60점, 여성은 3.51점으로 나타나서 5점 리커트 척도임을 감안할 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서울시(2008)에서 조사한 결혼태도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태도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가 상반되는 것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응답자가 학생비율이 높아서 현실적인 결혼인식이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태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2집단 또는 3집단으로 분류하여  $t$ -test, ANOVA 분석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종교에 따라서만 결혼태도의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태도

변인	집단	남자		여자	
		N	M(SD)	N	M(SD)
연령	22세 이하	80	3.54 (.74)	157	3.45 (.65)
	23세 이상 ~ 27세 이하	126	3.53 (.83)	96	3.60 (.46)
	28세 이상	108	3.74 (.64)	85	3.50 (.67)
<i>F</i> 값		2.601		1.638	
종교	종교 있음	231	3.72 (.65)	251	3.58 (.62)
	종교 없음	83	3.32 (.91)	89	3.31 (.54)
	<i>t</i> 값	4.350***		3.671***	
학력	고 졸	33	3.68 (.46)	23	3.41 (.51)
	대학교 재학	166	3.59 (.84)	186	3.51 (.63)
	대졸 이상	115	3.62 (.58)	131	3.53 (.57)
<i>F</i> 값		.215		.354	
출생순위	장남 · 장녀	149	3.65 (.69)	162	3.49(.65)
	그 외	165	3.58 (.88)	178	3.56(.51)
	<i>t</i> 값	.663		-1.116	
가족유형	핵가족	204	3.65 (.69)	241	3.60 (.52)
	그 외	110	3.58 (.88)	99	3.43 (.67)
	<i>t</i> 값	.705		1.952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39	3.82 (.58)	25	3.51 (.61)
	300만원~400만원 미만	180	3.56 (.85)	188	3.49 (.65)
	400만원 이상	95	3.61 (.60)	127	3.55 (.57)
<i>F</i> 값		2.004		.335	
직업	있 음	226	3.58 (.83)	229	3.49 (.64)
	없 음	88	3.66 (.47)	111	3.55 (.57)
	<i>t</i> 값	3.580		-.865	

\*\*\*  $p < .001$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녀 모두 종교가 있는 집단(남성:3.72, 여성:3.58)이 종교없는 집단(남성:3.32, 여성:3.31)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진 미혼남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고찰이 없고 본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종교유무뿐만 아니라 종교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결혼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부모자녀관계 지각에 따른 결혼태도의 차이

응답자들의 부모자녀 간 관계지각에 따른 결혼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에 따라서 결혼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는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아버지에서와 비교해 볼 때 *F*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에 대한 선호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이 낮은 집단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높고, 결혼이 배우자 역시 의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결과라고 해석가능하다.

부모와의 유대감 지각에 따른 결혼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부모 모두와의 유대감 지각에 따라 결혼태도의 집단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은 아버지와의 유대감에 따라 결혼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을 선호하였다. 여성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응답자 모두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유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백영수, 2002; 이지은, 1996)에서도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결혼적응에 긍정이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4. 관련변인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변인들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Durbin-Waston 계수가 남성은 1.968, 여성은 1.957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상의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회귀모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관련 변인들이 연속변인인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명목이나 서열변인은 더미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표 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과 유대감 지각에 따른 결혼태도의 차이

변인	집단	남자		여자		
		<i>N</i>	<i>M(SD)</i>	<i>N</i>	<i>M(SD)</i>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어머니	심리적 독립심 낮음	103	3.70(.70)	118	3.60(.51)
		심리적 독립심 중간	104	3.63(.82)	114	3.50(.61)
		심리적 독립심 높음	104	3.48(.72)	112	3.41(.70)
		<i>F</i>		2.250		2.518
	아버지	심리적 독립심 낮음	101	3.66(.75)	115	3.53(.66)
		심리적 독립심 중간	104	3.58(.86)	104	3.52(.69)
심리적 독립심 높음		101	3.56(.64)	113	3.47(.46)	
	<i>F</i>		.508		.339	
부모와의 유대감	어머니	유대감 낮음	97	3.53(.63) <sup>a</sup>	110	3.45(.53)
		유대감 중간	113	3.47(.81) <sup>a</sup>	112	3.51(.63)
		유대감 높음	100	3.84(.75) <sup>b</sup>	115	3.55(.67)
		<i>F</i>		7.316 <sup>**</sup>		.751
	아버지	유대감 낮음	104	3.49(.73) <sup>a</sup>	110	3.38(.69) <sup>a</sup>
		유대감 중간	105	3.57(.67) <sup>ab</sup>	111	3.52(.56) <sup>ab</sup>
유대감 높음		102	3.76(.84) <sup>b</sup>	116	3.60(.56) <sup>b</sup>	
	<i>F</i>		3.569 <sup>*</sup>		3.756 <sup>*</sup>	

알파벳 위첨자는 사후검사인 Scheffé 결과의 차이 집단 표시임

\**p* < .05, \*\**p* < .01, \*\*\**p* < .001



〈표 5〉 관련변인들의 결혼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 인	Model 1		Model 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 령	.087	-.130	.119	-.087
종 교 <sup>1)</sup>	.223***	.277***	.221***	.271***
학 력 <sup>1)</sup>	-.046	-.001	-.075	-.014
출 생 순 위 <sup>1)</sup>	-.086	.003	-.094	-.011
가 족 유 형 <sup>1)</sup>	-.034	-.102	-.016	-.077
직 업 <sup>1)</sup>	.001	-.144*	.023	-.150*
가 계 소 득	.004	.065	.020	.006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어 머 니		-.030	-.109*
	아 버 지		-.065	-.002
부모와의 유대감	어 머 니		.056	.021
	아 버 지		.220*	.156*
Constrant	69.926	69.993	60.385	71.824
R <sup>2</sup>	.067	.094	.110	.125
ΔR <sup>2</sup>			.033	.016
F	2.942**	4.580***	3.145**	3.844***

종교(없음:0, 있음:1), 출생순위(둘째이하:0, 장남장녀:1), 직업(없음:0, 있음:1), 가족형태(비핵가족 :0, 핵가족 :1)

\*  $p < .05$  \*\*  $p < .01$  \*\*\*  $p < .001$

였다. 모델 1은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모델 2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과 부모와의 유대감 변인을 포함한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혔다.

모델 설명력에서 성별비교를 하면 본 연구의 변인들은 여성의 결혼태도를 예측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모델별 설명력과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6.7%였으며, 유의한 변인은 종교 변인으로 앞에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한 것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9.4%로 남성이 비해 설명력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와 직업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응답자들이 종교를 가질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변인의 경우 ‘취직’ 경향의 반영과 여대생이 다수인 영향으로 보여 진다.

모델 2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부모와의 유대감 지각 변인을 추가하여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남성의 모델 설명력은 약 11.0%이었고 관련변인으로는 종교와 아버지와의 유대감 지각 변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종교가 있을수록,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결혼태도를 보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모델 2의 설명력은 12.5%로 나타나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변인만을 포함했을 때보다는

설명력이 높았고 종교, 직업,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 아버지와 유대감 인지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종교를 가질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와 유대감이 높을수록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아버지와 유대감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 지각 정도가 결혼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여성은 부모와의 관계지각이 결혼태도 형성에 중요함으로 이를 건강하고 성숙한 결혼가치관 형성에 반영해야할 점으로 보여 진다.

## V. 논의 및 제언

이제 결혼은 개인의 선택으로 성인기에 일방적으로 겪는 일상이 아니고 신중하게 의사결정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집안끼리의 결합이나 가계계승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결혼유무, 결혼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미혼자들의 결혼태도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일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습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일차적인 환경이 가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원가족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미래의 결혼경향성과 관련되는 변

인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유무가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점이다. 남녀 모두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결혼태도에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지 않았던 선행연구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유무는 결혼당사자 개인의 삶 전반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삶의 하나인 결혼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종교는 개인의 삶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면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결혼선택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교가 갖는 구체적인 영향력과 종교유형별 상대적 영향력 등을 분석하여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역시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이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영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윤정(2006)의 선행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이 결혼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혼여성이 어머니와의 의존적 관계를 유지할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어머니로부터의 결혼가치를 학습하게 되거나 동일시하고자 하는 점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점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심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낮은 독립심은 의존성이 높음으로 해석해볼 때 딸이 어머니에게 의존적일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은 자신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의존의 대상을 바꾸어서 충족시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심 지각정도가 결혼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변인인 점은 예비부부교육 시에 활용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최근 예비 부부교육에서 강조되는 영역 중 하나가 원가족 내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원가족과의 적절한 분리과정이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결혼 전과는 다르게 원가족과의 유대감과 독립심을 유지하는 연속과정으로 이해해야하며 원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최우선 되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결혼당사자인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결혼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앞으로 자신의 결혼생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결혼선택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의존하려고 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다면 결혼 후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예비부부 교육에서 자신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적절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적절한 유대감이 결혼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져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인 자녀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인기의 규범이나 가치관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딸의 경우 적절한 배우자감에 대한 기준과 기대감을 갖게 하고, 아들의 경우 결혼 후 자신의 미래 역할모델을 학습함으로써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성인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남성이나 아버지상을 학습하고 동일시할 수 있으며 성인 딸은 이성인 아버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성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행복한 결혼을 기대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결국 본 연구는 부모의 영향력이 자율성 부여 측면이든, 유대감 지각 측면이든 미혼 성인자녀의 결혼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교의 영향력이나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원가족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밝힌 결과로서 원가족과의 관계변인을 다양화해서 결혼태도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실천현장에서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시에 참여자의 생활특성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비부부가 자신의 부모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양상이 자신의 결혼을 예측하는데 중요함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예비부부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예비부부의 원가족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예비부부 교육과 상담과정에서 원가족과의 관계분석에 관심을 갖고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래 결혼지연 및 거부, 혼인을 감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한 시점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실천적, 학문적 의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어 보완하고 구체화해야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남성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발굴하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회귀모델은 여성에게 더 설명력이 높음으로 남성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인을 밝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해 본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변인을 제시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아버지와의 유대감 양상이 주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결혼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를 가졌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미혼 남녀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미혼남녀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결혼태도를 비교하여 결혼을 예측하는 변인을 밝혀야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경애(2006).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전북과학대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인숙(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재철(2006).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설문조사**. 경북: 영남대학교 통계연구소.
- 김경신, 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7-43.
- 김보경(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희(2008).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희, 문영소, 박정윤(2003).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7, 53-72.
- 김용미, 서선희, 옥경희, 정혜정(2002). **결혼과 가족의 의미**. 서울: 양서원.
- 김태현, 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김해선, 이정음(200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211-224.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순현(2007). 예비부부세대의 결혼관에 관한 성차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7(1), 41-63.
- 문소정(1994). **가족이데올로기**, 서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박민자(2004).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소진(2007). 성인 미혼남녀가 지각한 독립성과 부모의 결혼만족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선(2007). 대학생의 결혼이미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낭만적 애착의 관계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영수(2003).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시(2008).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조사, 서울시.
- 신효영, 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2007년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94-495.
- 오선영(2005).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 만족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라(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삼식(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 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신인철, 전남훈(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원(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하, 최연실(200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75-92.
- 임연미(2004). 기독교 청년의 이성교제 현황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유진(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신혼기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4.
- 정윤경(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운정(2006).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경혜(2003). 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103-1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ulcroft, R. A., & Bulcroft, K. A.(1993). Race differences in attitudinal factors in the decision to mar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338-356.  
Cooney, T. M., & Hogen, D. P.(1991).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178-190.

Goldsheider, F. K., & Waite, L. J.(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6), 55, 1410-1427.  
South, S. J.(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606-626.

---

접 수 일 : 2009년 10월 25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5일